

나는 왜 ‘통일 기러기’가 되었나, 28년을 기다린 방북 취재

뉴스로
www.newsroh.com

로창현 기자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의 새벽은 희미한 안개에 젖어 있었다. 택시 몇 대가 두 줄로 서 있다. 창 너머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조명 속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가 평양의 한복판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방북 이야기를 하면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이 “보여주고 싶은 것,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만난 북 관계자들은 남녘 기자의 ‘홍보’를 원치 않았다. 충분히 내세울 만한 것들도 취재를 탐탁지 않아 했다.

인공위성 등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과

시하는 과학기술전당도 방북 후 내가 요청해서 간 것이었다. 왜 이런 곳을 자랑(?)하려고 안 했을까. 취재의욕을 보이자 안내원이 웃으며 말했다. “로 선생, 우리는 홍보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했고 서방 미디어가 덧칠한 ‘비정상’ 이미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 또한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원했다.

기자로서 북녘 방문은 오랜 목표였다.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기간 중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전격 합의되어 각 사별로 한 명씩 평양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우리 신문의 유일한 축구기자로 현장에 있었

으니 통일축구대회도 가는 게 마땅했다. 그러나 고작 3년 차인 ‘신참’에게 역사적인 첫 방북 취재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서열에서 밀리거나 불운으로 번번이 놓쳤다. 얼추 30년의 기자생활을 하면서 또 다시 방북 취재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내가 대표기자로 있는 뉴스로(www.newsroh.com)의 필진 강명구 씨가 북녘 종단이 포함된 유라시아대륙횡단마라톤에 나서게 되면서였다.

2018년 초부터 평양행을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

권자인 사람은 통일부 신고만 하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강명구 마라토너는 입북이 좌절됐지만 나는 극적으로 같은 해 11월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까지 고려항공을 타고 가는 동안 복잡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두루미를 상징물로 하는 북한 국적을 타고 남한의 기자가 날아가는 모습이 ‘통일 기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8년 만에 성사된 방북 취재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내가 생각했던 북한과 직접 체험한 북한은 너무나 달랐다. 원하는 곳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닌 단독 취재였기에 신선한 충격은 더했다.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뒤로 해가 뜨고 있다.



평양의 교통체증

평양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대중목욕탕에선 청년이 내 등을 밀어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안 되는 페이스북과 구글, 카톡을 평양에선 마음대로 했다. 청춘거리의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6대4라는 얘기에 놀라기도 했다. 미림항공구락부에서는 경량비행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나는 스릴을 만끽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수도상공을 관광비행기에 개방한다는 말인가.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는 북한의 심장부라는 것이 아이로니컬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첫 방북에서 안내원이 한 말이다. 평양의 변화속도가 엄청나다는 뜻이었다. 녀달 뒤인 2019년 3월 두 번째 방북 취재에

서 실감할 수 있었다. 곳곳에서 새로운 빌딩 공사가 진행되고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 열풍이 귀전화기(스마트워치)로 번지고 있었다. 교통체증으로 기존의 차량 2부제에 일요일 자가용운행 전면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 평양 택시도 너무 많아 20%를 지방으로 돌렸고 여성교통보안원을 대폭 줄여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불과 녀 달 만에 바뀐 변화상을 목격하면서 이번에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첫 방북 경험을 최신 소식으로 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계절에 한 번은 와야 북의 변화를 따라잡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지난 1년간 네 차례나 방북 취재를 하게 된 배경이다.

‘천리마 속도’에서 ‘만리마 속도’로 북의 변화속도는 숨 가쁘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북은 2020년을 사변적 해로 만들었을 것이다. 올해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및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가 공식화된 10주년이다. 북으로선 이른바 ‘꺾어지는’ 중요한 해다.

올초 개장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이어, 4월15일 태양절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10월10일 노동당창건일엔 백

두산삼지연관광지구 완공을 독려한 것도 그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다면 경자년을 새로운 관광대국을 꿈꾸는 원년으로 삼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평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침 산책 시간이었다. 미명의 새벽, 길을 나서면 강 건너 동평양의 주체사상탑을 뒤로 서서히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강변엔 배드민턴과 체조, 조선춤과 낚시를 즐기고, 애완견 산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출근길 자전거를 타거나 분주히 걸어가는 직장인, 학생들도 자주 만난다.

아침 산책의 장점은 평양 시민들과

대동강변엔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들이 많다.



대화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먼동의 붉은 기운을 머금은 채 유유자적 흐르는 대동강이 시민들의 마음을 한결 여유롭게 하는 걸까. 인사를 하고 말을 걸면 대부분 환한 미소와 함께 답을 해준다.

부부로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서로의 허리를 감싸안고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도 보았다. 저 정도 나이의 부부라면 우리도 닭살 돋는다며 쉽지 않을 텐데... 북녘 사람들은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또 다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신형 휴대폰 사려고 장사진

개성 가는 길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



2019 가을철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고려심청회사 부스에서 직원들이 안경 쓰고 홍보하고 있다.



했다. ‘정보통신기재 판매소’ 상점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 안내원에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냐”고 물었더니 “아, 손전화기(휴대폰) 사려는 겁니다. 신형 손전화기 사는 줄입니다” 하는 게 아닌가. 북에서도 신형 휴대폰이 나오면 먼저 구입하려고 장사진을 이룬다는 게 신기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북에 대한 선입관이 작용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과학기술력의 나라가 선진제국이 향유하는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지 못할 게 뭐 있는가. 북의 인민생활 향상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건설’에 방점을 찍은 뒤 두드러진다.

발전의 상징은 저마다 들고 다니는 스

마트폰이다. 인구 3명당 한 대꼴인 800만 대로 추산되는 스마트폰을 통해 북 전역의 실시간 정보가 교류되면서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

오늘의 북을 관통하는 것은 ‘자력갱생’의 기치다. 북은 지난 30여년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했고,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살림집(아파트)마다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가정용 전기를 쓰고, 계단형 발전소와 자연흐름식물길 공사 등의 대역사가 그것이다.

강원도 세포 등판엔 황무지를 개간해 세계 최대의 축산 국가인 뉴질랜드의 대목장 두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축산기지



2019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수많은 사람이 입장하고 있다.

를 조성했다. 약품 수입이 안 되니 온갖 민간약재를 개발했고 화학비료가 없으니 자연비료를 만들었다. 그 덕분에 유기농 식품을 먹게 되었고 GMO(유전자변형) 문제는 남의 일이다.

고려심청은 어떤 회사일까

2019년 9월 세 번째 방북에서 제15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취재했다. 북 기업들과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몽골 등에서 사상 최다인 400여 업체가 참가했다. 재미있는 상호도 보였는데 가령 고려심청회사는 안경을 생산하는 회사다. 효녀 심청과 심봉사의 이야기에 빗대었으니 재치 만점이다. 마케팅을 위해

직원들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어 이채로웠다. 화장품 회사로 안성맞춤인 팔선녀 화장품기술교류소도 있었다.

건강제품과 어린이 발육성장제, 살까기(다이어트) 약도 인기였다. 문수물놀이장에서 배 나온 중년 남성들도 보았지만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먹는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이 아닐까.

행사장 입구엔 평화자동차의 ‘휘파람’ 승용차 시리즈와 빼꾸기 SUV 시리즈가 5종씩 전시됐고, 삼천리 회사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유람보트와 작은 요트들도 시선을 끌었다. 신형 자동차를 홍보하는 대형 옥외광고판이 순안국제공



문수물놀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지도한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항 인근과 도심에 세워졌다. 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해 느낀 점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내수경제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재로 인해 북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자력갱생, 자력자강으로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제재의 역설이다. 남들처럼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허용된다면 북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국제상품전람회 열기가 말해주고 있었다.

‘최고존엄’ 자리에 앉으라고요?

초대형 워터테마파크 문수물놀이장을 갔을 때 얘기다. 11월 동절기여서 실내물놀이장만 개장했는데 수영, 파도, 조음파 등 다양한 풀에서 수천 명이 즐기고 있었다. 부속건물엔 여러 한증방과 커피숍, 식당, 포켓볼 당구장, 이발소, 미장원 등의 편의시설도 있었다.

2층 커피숍에서는 창가 통유리를 통해 물놀이장 전경이 훤히 보였다. 남성 손님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맥주와 스낵을 즐기고 있다. 창 쪽에 4인용 소파와 탁자가 있었다. 해설사가 “이 원편 의자가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얼마 전 현장지도하신 자리입니다”라

고 소개한다. 귀가 번쩍 뜨여 카메라를 드는데 곁에 있던 안내원이 놀라운 말을 한다.

“로 선생, 그 자리에 앉아 보시라요.”

“예? 앉아요? 여기 앉아도 됩니까?”

“아, 의자가 앉으라고 있는 건데, 허허.”

긴가민가하면서 슬그머니 앉아보았다. 폭신한 소파였지만 공연히 긴장됐다. 안내원이 직접 사진을 찍어주었다. 앉은 채로 “이거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죠?”라고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웃음꽃이 핀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최고 지도자가 현장지도한 자리엔 아무나 앉아서 안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녘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 연예 스포츠 스타들이 다녀간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며칠 뒤 방문한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테이블 좌석이 평양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앉기 힘들다는 것이다.

北 바로 알기가 정답이다

지난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주간 모습을 안 보이자 남한과 미국의 미디어가 웃지 못할 오보와 가짜뉴스 소동을 벌였다. 소위 북한전문가들도 잇따라 헛다리를 짚으며 빈약한 정보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블랙코미디의 원인을 북의 폐쇄성에 두었다. 언어도단이다. 소셜적 상상을 넘나들고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

로동신문 앞에서



평양 전경

습을 드러내고 또다시 3주간 잠행했지만 이번엔 어떤 언론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보와 폐쇄성은 무관하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언필칭 북의 폐쇄성도 지난 70년간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물 아니던가.

북 관계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다. 북이 단지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생각은 ‘두

발은 대지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려는’ 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2018년 12월 현재, 168개국과 수교(한국은 191개국)한 북을 비정상국가로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옥죄는 환경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체제 보장 없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북을 오직 사실로써 판단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들여다보라. 난마처럼 얽힌 매듭은 거짓말처럼 풀릴 것이다. 🇸🇰